

#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건설 사장 박창민입니다.

지난 2015년은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심화와 저유가로 인한 해외 건설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한 발 앞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동종사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S-Oil 및 쿠웨이트 Al-Zour Refinery 공사 수주로 석유화학플랜트 전 공중 수행체계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투철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아시아지역 기업의 지속가능 성과를 발표하는 '2015 아시아 지속가능성 랭킹'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9위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한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16년 상반기 지속적 매출성장 및 전사적 원가절감 노력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조기졸업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대내외 경영환경은 사업분야나 업역에 관계없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안한 거시경제와 더불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발주감소, 정부의 건설업 구조조정, 주택경기 하강국면 예상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국내의 부정적 환경들은 힘든 도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대우건설은 과거 위기와 도전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내 1위의 건설사로 우뚝 섰던 DNA를 바탕으로 2025년 'Global Infra & Energy Developer'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사업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안정성 개선,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 참다운 인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안전성 개선입니다. 단순 시공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에 힘쓸 것입니다.

혁신적 원가절감, 수익성 위주의 수주심사, Cash Flow 기반의 목표관리, Risk 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경영 정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입니다. 조직혁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내 누적된 비효율을 제거할 것입니다. 유사사업·중복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중복된 관리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강화하여 슬림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셋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업의 기본은 정직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도덕의 원칙에서 운영하여 지속적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참다운 인재경영의 실천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성공요인에는 언제나 인재가 있습니다. 전공·학연·지연의 편견 없이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고 양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조직의 새롭고 참신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대우건설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지속적인 성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박창민